

신년사



종 상

〈본지 발행인〉

2018년 무술년 개띠 해

2018년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평창올림픽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주요 일정이 이어 집니다. 한반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세상을 뒤흔들어 다사다난할 한 해를 예고하는 속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큰 일은 안녕과 행복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세월이 수 십 년입니다. 매일 삶 속으로 찾아드는 기쁨, 슬픔, 분노, 절망 등을 이제는 좀 다스릴 줄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새해가 되면 한번쯤 짚어보게 됩니다.

마음집중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

평안 · 행복은 감사 · 배려를 연습하고 익혀서 얻는 기술

‘삶’의 기술

삶에도 분명 익혀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인생을 만들어 내는 괴와 삶입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인생무상의 유한한 존재임을 수용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왜 당신은 이쪽입니까?’라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지만 막상 길 위에서 행복하게 걷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느라고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

미국 버클리대학에는 안녕과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레이터 굿 과학 센터’라는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연습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며 마음집중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을 익히면 무거웠던 삶의 무

게가 가벼워지면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평안과 행복은 연습하고 익혀서 얻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

안녕과 행복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의 하나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거울 속 웃는 나를 보면 웃음의 효과는 배가하는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 행복해지는 이치입니다. 힘들 때 마다 허허 웃는 작은 미소, 그 긍정의 마음이 삶에 늘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마음집중

〈금강경〉 제 1분에서는 부처님의 평범한 하루 일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가르침을 열고 있습니다.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서 걸식하러 사위 대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하고 나서 본래 머물던 곳으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가사와 발우를 제 자리에 놓고 발을 씻은 다음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는 부처님의 일상 하나하나의 행위가 그대로 마음집중의 수행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부처님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곯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오직 그것을 하실 뿐이며, 매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대로 깨달음을 삶속에서 피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말고, 자꾸 욕망을 일으켜 도달할 곳을 찾지 말고, 번뇌와 집착으로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삶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있으라. 그것이 부처님의 행이고 〈금강경〉의 실천입니다.

현재의 삶이 ‘의미’

서양의 공자라고 칭송받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듀이도 교육을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로 여기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과 욕구를 송두리째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유일한 목적을 바로 대학 입시라는 외적인 보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 듀이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삶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공부의 과정에서 탐구와 발견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은 아무리 간단한 원리나 지식을 배우더라도 단숨에 교사가 알려주는 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단순한 덧셈뺄셈을 배우더라도 단순하게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관 지어 하나의 경이로운 발견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행복과 희망은 ‘현재’ 뿐
우리는 미래의 불안, 미지의 두려움을 가슴 깊이 안고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현재를 늘 희생양으로 바쳐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더라도 더 배워야 했고, 한 순간이라도 더 애써야 했으며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보니 현재는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 되었고, 행복과 희망은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한없이 밀려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 즐거움, 행복, 사랑, 아름다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제대로 수확할 수 있도록 매순간을 소중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 74억 인구 중에서 손님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순간순간을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에는 과거나 미래에 조정을 맞추는 대신 감사와 배려를 실천하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담아 집중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20세기 민화 ‘당삼목구(唐三目狗)’는 개가 짚어 삼재(三災)를 쫓는다는 의미이다. (국립민속박물관)

불교 4대 명절 ‘성도재일’

마음 잘 다스려 복덕과 공덕 많이 짓기를...

불교 4대 명절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교무 성견스님의 지도하에 맹주위에도 30여명의 불자들이 철야기도를 봉행했다.

지난 1월 23일 (음력 12월 7일)저녁 9시에 임재하여 설법전과 선불장에서 법문과 참선, 석가모니불 정근기도와 축원을 끝으로 다음날 새벽 4시에 회향했다.

이날 성견스님은 “본인이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으며 모든 것은 마음을 하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 복덕과 공덕을 많이 짓자”라고 법문했다.

이날 철야기도에 참석한 불자들을 위해 잣죽과 따뜻한 차를 신도회(회장 홍무상행)에서 봉사했다. <글·사진 조여래장>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문성행 50부, 성인기 50부
- ♣ 안양교도소 김진식 50부, 김태용 50부, 손영호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희용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주소연 50부, 김대희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주 대궁 종상 주지 성행

교무 : 성견 재무 : 명원 포교사 : 명혜 노전 : 정타 부전 : 원당 보륜

- 총신도회 상락회 지장회 관음회 합창단 출판부 육법회 삼보회 금강회
- 불기관리부 승무단 다라니회 문수회 보현회 마야회 반야회 청다회 목어회
- 우담회 길상회 장엄등연구회 염불봉사단 108선원순례단
-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천진불회 청년회
- 청계불교대학 총동문회

- 대궁선원
- 부경대경인동문회
- 서울구치소 불심회
- 의왕시 공무원불자회
- 성남시 공무원불자회
- 의왕경찰서 불자회
- 분당경찰서 불자회
- 청계사 종무원
- 녹향원 임직원
- 희망나래종합복지관 임직원
- 청계주간보호시설임직원
- 대궁어린이집 임직원
- 하동청소년수련원 임직원
- 카루나봉사단

※부설 운영기관

- 녹향원
- 희망나래복지관
- 청계주간보호시설
- 대궁어린이집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5,757,8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 봉사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 분은

-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월 봉사자 명단

- 단체
삼성에스원 큰나눔 봉사단, 청계사자유발도르프 동아리 "다불어", 이시도르 연구소, 무지개봉사단, 지열기술, 길인영모임, 김성주모임, 물빛회, 용화사보현회
가족
윤여승, 김승범, 조성범, 이주용
성인
김정주, 이연희, 이인혜, 임재옥, 박해숙
학생
김용환, 탁효민, 김시혁, 이민석, 송민근, 송승근, 서영우, 이종혁, 송혁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녹향원 가족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배워 잘 나갈 수 있게 분발

은 세상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시기에 임사를 하여 온 세상이 하얀색 변하는 시기에 정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녹향원 거주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직원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거주인들이 실수를 하여 다치지 않을까?

실수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생각과 걱정을 하며 오늘도 녹향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직 녹향원 거주인들에게 신뢰를 쌓거나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고, 도전은 앞

으로 나아가는 길잡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실패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분발해야겠습니다.

<글 생활재활교사 이광수>



2018년 1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1월 1일부터 ~ 1월 31일까지)

Table with columns: 구분, 수입, 지출, 전월이월금, 차월이월금. Total income: 5,757,800; Total expenditure: 5,021,00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7년 10월 1일 ~ 2017년 10월 31일까지)

- 직접납부
후원금: 5,000원-정계재, 김중호, 최명자, 가 진, 진 경
후원금: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민, 변일용, 박경선, 이동호, 이종호, 정일환,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오유순, 무진성, 임현재, 박정현, 유양이, 정도화, 손선중
후원금: 20,000원-김상훈, 조점이
후원금: 50,000원-심경미
자동차 납부
후원금: 5,000원-김경숙, 심영화, 최종철, 김기범, 한규용, 배윤경, 이환영, 김미현, 박소용, 김도연
후원금: 10,000원-김일남, 한경원, 문유경, 이귀라, 윤석호, 이고은, 윤오복, 성담님, 김성자, 김선영, 노석주, 노경숙, 한금자, 한수용, 김재기, 안종수, 이승주, 박호준, 박형준, 김진혁, 김희연, 하용권, 정현식, 원은희, 이금선, 원영수, 권은정, 조학래, 박승규, 신영선, 김장식, 손성순, 서연순, 조현상, 조한진, 조수현, 윤미애, 홍명희, 윤석태, 김희용, 조형근, 민창근, 월정심, 신영원, 유동채, 이종안, 배공래, 유인순
후원금: 15,000원-박성준, 신영옥
후원금: 20,000원-권돈희(은경), 남종훈, 현동순, 보람광고, 김재태, 고준, 문미숙, 황덕수, 김나현, 김태희, 이인숙, 신지현, 김공자, 김미숙, 목영옥, 곽경희, 박은영, 제수암
저금통
후원금: 27,400원-박진우
후원금: 31,480원-정지원
후원금: 34,330원-홍지선
후원금: 35,690원-정보금
후원금: 35,700원-박정훈
후원금: 45,270원-이윤정
지로 납부
후원금: 5,000원-김지현
후원금: 10,000원-이경숙
후원금: 20,000원-이인숙
후원금: 40,000원-최창순

물품 후원

장미영-케익, 떡, 청계사-떡, 임재옥-굴, 의왕시청-공기청정기, 원주추어탕-추어탕, 김치, 지열기술-휴지, 삼프, 칫솔, 청계사신도-전빵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안수정등(岸樹井藤)

무술년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무리 들어도 또 설레고 추억에 젖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식구가 한데 모여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루! 단 하루인데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뱃돈, 맛있는 음식, 아니면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한데 어우러지는 일들,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우리나라의 세시 풍습 중에 가장 큰 절기인 것 같다.

부처님게서도 모두 함께 읊조리는 것을 수행의 도를 삼으셨을 정도이니, 모인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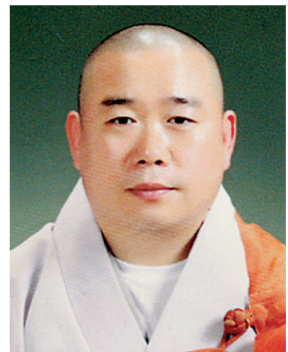
그래서 대중(大衆)이라 칭하였다. 무술년 한해는 자기

입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달콤한 쾌감! 그 쾌감에 빠져있는 동안은 무서운 공포심도 사라지고 다시 꿀물을 받아먹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에 쌓여 두려웠던 공포가 사라져 버렸다.

이 화두는 중생의 삶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가없이 너른 들녘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생사의 광야이니 그곳으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불길은 생로병사의 불이요, 우물은 황천이며, 미친 꼬끼리는 무상한 살귀(殺鬼)요, 나무는 사람의 몸이며, 칩니다.

그러서 대중(大衆)이라 칭하였다. 무술년 한해는 자기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우주 삼라만상 모든 근원은 곧 마음

올 한 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 되고

무술년 새해 큰 행복 가득하길 기원

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경계를 돌아볼 수 있을지를 잘 표현한 불교경전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안수정등(岸樹井藤)이야기이다.

한 나그네가 막막한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꼬끼리가 미친 듯이 나그네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어디 숨을 곳이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나그네는 쫓기는 것에 지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자포적인 생각도 했으나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욕망에 때로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 달리기도 하다가 오아시스에 이르러 갈은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우물가에는 굵은 등나무 넝쿨이 깊은 샘물 속으로 늘어져 있었고 나그네는 그 등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데 그 우물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기겁을 하고 다시 올라 오려 하는데, 머리 위에서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교대로 갈아먹고 있었고 돌로 쌓아올린 우물 벽에는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이때 등나무 넝쿨 줄기에 매달린 벌집으로부터 푹푹푹 5방울의 꿀물이

넝쿨은 우리의 목숨 줄이며 커다란 구렁이는 우리가 사약하게 지은 업장이며 다섯 방울의 꿀물은 물질욕, 색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즉 오욕이며 독기어린 혀를 날름거리리는 4마리의 독사는 우리가 죽어 분해될 4가지 원소인 지, 수, 화, 풍(地水火風) 4대 육신이다.

안수정등(岸樹井藤)이란? 바로 우리 인간이 미친 꼬끼리에게 쫓겨서 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며 언제 끊어질지 모를 우물가 등나무 넝쿨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근원은 곧 마음이다. 크게 쓰면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지만 좁게 쓰기 시작하면 바늘구멍보다 못한 것이다.

같은 마음으로 지옥과 극락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안수정등 이야기. '불설 비유경'에 비유담으로 나온다.

우리의 인간사를 너무도 절묘하게 표현해 놓은 이야기를 귀 동냥을 통해 무수히 들어온 비유담(比喩談)이었으나 삼심(三心)을 울려줄 법문(法門)이다.

무술년 새해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립니다.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달의 운세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column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year's fortune.

<정리 공명화>

2018년 무술년 개의 해

불교속에서 본 개의 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용맹한 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민봉 스님의 1977년 작품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18년은 간지(干支)로 따져서 개의 해이다. 60간지 중 35번째로, 무술년(戊戌年)의 '무(戊)'는 황금을 뜻하고, '술(戌)'은 개를 뜻하여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황금 개띠'가 된다. '개'는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에게 의해 가축화 되었다. 사람에게 충실하고 의리가 있는 가족으로써 충견설화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더 다양한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사냥 성공률도 비약적으로 높여지면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이다. 왜 늑대였을까? 인간의 공막(눈의 흰자위)은 영장류 중 유일하게 희다. 멀리서도 시선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사냥하기에 좋다. 늑대도 그렇다. 갯과 동물 25종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늑대는 얼굴과 눈 색깔, 흉채와

옛날에는 개의 이상한 행동이 미래의 일을 예견한다고 믿었다. 백제본기에도 백제가 망하기 한 달 전 "들 사슴 모양을 한 개가 서쪽에서 와서 사비성 강둑에 이르러 왕궁을 보고 짖어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기록돼 있다. 선조들은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흥사가 있거나 가운(家運)이 망한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개 그림도 적지 않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의 벽화 권우직녀도에는 직녀는

인간의 충성스런 친구, 재앙 막는 용맹한 수호동물 개를 가축화 한 것은 도구의 발명과 맞먹는 도약

천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개'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개를 바라보면, 개도 인간을 바라보고 눈을 맞춘다. 이것은 단순히 반려동물과 감정을 나누는 행동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류를 만든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었다.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하고 현생 인류는 살아남았는가?'는 인류학의 오랜 질문이다. 최근 발견된 '침입종 인간'(옛 시프르인 지음)은 그 답으로 '현생 인류와 개의 동맹'을 꼽는다. 책에 따르면 약 5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도착한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종류의 먹잇감을 사냥하며 경쟁했다. 그러나 인류는 적어도 3만 6000년 전에 늑대를 '늑대-개'(원시 개)로

늑동자가 강하게 대비돼 시선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개가 늑대보다 인간을 응시하는 시간이 평균 2배 길다는 것도 인간이 그런 개체를 선택해 길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침입종 인간'의 저자는 "인간이 개를 가축화한 건 도구의 발명과 맞먹는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길들인 개는 오랜 세월 총지함의 대명사였다.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는 시간으로는 오후 7~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로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방위신(神)이자 시간 신이다. 개는 이 방향과 이 시각에 오는 사기(邪氣)를 막는 동물 신이다. 가회민화박물관 소장 20세기 민화 '당삼목구(唐三目狗)'는 개가 짖어 삼재(三災)를 쫓는다는 의미이다.(국립민속박물관)

개를 데리고 서 있고 무용총과 각저총에도 총지해 보이는 개 그림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개를 많이 그렸다. 나무 아래 개가 그려진 그림은 '집을 잘 지켜 도둑을 막는다'는 것을 뜻한다. '개 술(戌)'자는 '지킬 수(戌)'자와 모양이 비슷하고 '나무 수(樹)'자와도 음이 같기 때문이다. 오동나무, 대나무, 복숭아 나무 밑에 그려진 개는 각각 상서로움과 평화로움, 영생과 불변, 장생을 오래 누리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개 중 흰둥이는 전염병과 도깨비,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재난을 경고해 준다고 믿었다. 농가에서는 노란 색이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누렁이를 많이 길렀다. <정리 여택진>

개해의 불교소사

- △698년 : (신라 효소왕 7년)발해 건국
- △1238년 : 신라 선덕여왕(645년)이 건립한 황룡사 9층 목탑이 고려에 침공한 몽골에 의해 전체가 불에 타 소실
- △1418년 :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름
- △1598년 : (조선 선조 31년) 임진왜란 끝. 12월 16일 노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 왜군이 쓴 총에 맞아 사망
- △1658년 : (조선 효종)조선이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를 친 2차 나선정벌
- △1718년 : (숙종 44년)가뭄으로 기근과 전염병 창궐
- △1898년 : (조선 고종 35년, 대한제국 광무 2년)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로 발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사망. 제주민란 발생. 중국 청나라에서는 과거제도와 조세 개혁 등을 시도한 '변법자강 운동'
- △1958년 : 우리나라 신생아 92만17명을 기록. '베이비 붐(baby boom)' 현상
- △2018년 : 평창 동계 올림픽

■ 무술년에 나는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무술년 한 해가 환희 받았습니...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
다. 벌써 환갑... 저는 58 명령이지요.
설법전에 앉았습니다. 또 다시 흐르는 눈물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눈물이겠지요. 청계사와 천일기도를 시작으로 인연 맺었

제부터인가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되돌아보는 마음과 나를 내려놓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들 또 눈물이 날지요.
권유혜 주신 주지스님과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신 지도법사 성담스님께 두 손 모아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작년에는 엄마의 힘든 시간을 옆에서

인생 2모작 준비하는 해

2018년 새해, 무술년(戊戌年)이 밝아왔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새해 복 많이 주고 받으십시오.
올해는 황금개띠 해이다. 특히 60년 전,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나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처음으로 한해 출생인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소위 '베이비부머 세

거 60년의 인생경험으로 미래 60년의 삶을 설계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2018년은 좋은 인연(因緣)으로 채워졌으면 한다. 인(因)이 있어서 연(緣)을 만나면 반드시 과(果)가 있다는 불교 사상을 생각해 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며 인과 연을 만들어 간

내 인생 곳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무술년 내 나이 육십에 불자로서의 삶이 뒤돌아옵니다.
청계사와 처음 인연은 꿈 많던 여고 시절이었습니다.
친구집이 잘 아래 동네라서 친구들과 놀러 갈 때면 종종 청계사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풍경소리를 들으며 수도도 떨고,

남으로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며 알아가는 기쁨은 덩어로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보시" 마음에서 우러나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어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나의 발원기도를 통해 부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른 중반으로 잘 자란 내 아들에게

부처님 자비 안에서 지혜로운 불자로 참선공부 다시 시작 할 터

됩니다.
잠 열심히 기도 다녔지요. 천일기도 회향을 하면서 봉사를 접했고 나를 행복한 생활하며 기도와 봉사를 하던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8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습니다.
'뇌출혈' 스님들과 많은 도반들, 친인척,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족
많은 부분이 생각나질 않고 흥미해져 정신 눈물도 나지 않는 매일 매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주지스님께서 참선을 해 보라고 권유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습니... 모두가 싫었기에... 힘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스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않았죠. 해 볼까?
좌선시간 마다 흐르는 눈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며 언

지켜주었던 아들이 어여쁜 인연을 만나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경사를 많은 축하 속에 치루는 행복도 누렸습니...
잠시 쉬었던 참선공부를 다시 시작하려합니다. 지식만이 가득 찬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 나기 위해 다시 가부좌를 틀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반, 신도들, 가족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자경성 <상학회 총무>

'도에 사는 자' 스스로 억제하고 생각 깊이 올바른 말 따르는 불자

대'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유년기에는 '보릿고개'의 마지막을 경험하였고, 청소년기 시절 고등학교 입학은 평준화가 시작되어 '뽕뽕이 세대'라 불리웠다. 성년기에는 유신정권의 몰락과 5공화국 탄생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체험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경제성장으로 대학 졸업과 함께 쉽게 취업을 하여 경제적 기반을 닦았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유례없는 경제적 고통을 몸으로 겪기도 하였다. 58년 개띠들은 올해가 회갑(回甲)이다. 하나 둘 자신의 직장에서 정년으로 물러나고 있다. 그런데 인구 학자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과거 60년, 미래 60년, 그렇게 생각하니 인생 2모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해이다. 극단적으로는 과

다. 부처님의 첫 말씀인 '우타니파야타'에 나오는 '도의 승리자', '도를 논하는 자', '도에 사는 자', '도를 더럽히는 자'의 네 가지 수행자 중에 '도를 더럽히는 자'는 되지 않아야 한다. 2018년에는 나와 같은 일반 중생들이 적어도 '도에 사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 부처님 말씀인 도에 살며, 스스로 억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깊으며, 올바른 말을 따르는 불자들이 많기를 바란다. 뜻 깊은 회갑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고자 한다.



김태웅 <에코피아 대표>

'보시' 마음에서 우러나 기쁨으로 실천

도량을 거닐며 우정을 나누던 편안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우연히 범회에 참여한 것이 인연되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청계사 신도가 되었습니다.
몇십년을 절에 다니면서도 백팔 배만 하고 천수경만 줄줄 읽으면 불자라 생각했고 소원성취는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성제가 뭔지 삼신불이 뭔지도 모르고, 계를 어떻게 살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제가 불교 교리를 배우고 나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 교리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는 지난날의 업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반님들과 주위에 좋은 인연 만

지혜롭고 예쁜 머느리를, 다소 늦은 나이로 간절히 기다린 머느리의 임신 소식을, 늘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팔순이 넘으신 친정 부모님의 기력회복을, 사업을 정리하고 마음 고생하던 남편의 새 사업을...
환갑의 나이가 되어 뒤돌아 본 내 인생 곳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올 한해도 몸으로 하는 봉사뿐 아니라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 마음도 나누고 나의 발원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주변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를 하시도록 발원합니다.
권대일화 <불교동문1회 회장>



권대일화 <불교동문1회 회장>

정초산림7일기도

- 입 재 : 불기 2562(2018)년 2월 18일 (음력 1월 3일) 일요일
- 회 향 : 불기 2562(2018)년 2월 24일 (음력 1월 9일) 토요일
- 기도비 : 5만원

정월방생 범회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2월 26일 (음력1월 11일) 월요일 7시 출발
- 장 소 : 안동시 봉황사 임하댐
- 동 참 금 : 4만원(공양미 준비해 오세요)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 출구 직진 미가참치 앞
- 차량관계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정월 합동 천도재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3월 11일 (음력 1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극락보전
- 동 참 금 : 30만원
- 계좌번호 : 109-058786-01-242 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선원제전집도서

언어가 끊어진 자연의 깊은 의미

‘휴공보월(擧筇步月)’ 지팡이 짚고 달 아래 거닐다 -허응당 보우스님-

황혼달월괘송지(黃昏淡月掛松枝) 황혼의 담담한 달빛 소나무가지에 걸리고
소영참차락고지(疎影慘差樂古池) 성긴 달그림자 어지러이 옛 연못에 떨어지누나.
만월한광인불식(滿月寒光人不識) 눈에 가득 차가운 달빛 아는 사람 없거늘
갱휴려장보지지(更携藜杖步遲遲) 다시 혼자 지팡이 끌고 내 걸음 더디고 더더
꿈을 깨고 구름 헤지며 돌아오네.

선사상(禪思想)은 동양사상의 뿌리입니다. ‘휴공보월(擧筇步月)’은 허응당 보우스님이 공부하는 산에서 한가로이 달 아래 거닐며 읊은 선시입니다. 선시는 자연의 질서를 내 자신 안에 끌어들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이치는 가시 없고 견문각지(見聞覺知)도 없이 자연의 질서를 끌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대방광불 화엄’의 세계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육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공(功)을 들이지 않으면 허상에 그칠 뿐이니 경건한 구절 선시 한 구절이라도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우주의 살림살이와 공유해야 합니다. 내면의 실상을 보고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이치를 깨달아 이 작은 몸속에 들어있는 불가사의한 생명의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계산하고 사랑 분별하는 것을 뛰어넘어 안

이 깊은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언어로 표현한 실상일 뿐 언어가 끊어진 자연의 깊은 의미를 반추와 사색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선시는 바로 언어가 끊어진 실상의 시계를 언어로 읊어낸 것입니다. 경(經)의 언어문자에 걸려있고 견문각지의 틀에 갇혀있는 사교를 선사(禪師)들은 초월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불법을 묻는 질문에 ‘말대기’라는 가르침으로 그 틀을 깨주는 것입니다. 보우스님은 ‘휴공보월’이라는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진 차가운 달빛을 느끼고 연못에 떨어진 달을 보며 생명의 본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옛 연못은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연못 속에 있는 달은 건재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만인이 공유하는 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평등의 세계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됨

내면의 실상을 보고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이치를 깨달음

과 밖이 텅 비어 있는 천진(天真)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본지(本地) 당처의 바탕위에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닦아가야 합니다. 선지식(善知識)의 마음세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산한 가지에 잎이 돌아나는 것처럼, 또 톱도둑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사교합니다. 맑고 깨끗하여 자연스럽고 지혜로우며 자유 자재합니다. 모든 걸 쓸어버리고 지워버린 절대 평등의 세계에서 사교하며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됩니다. 삼라만상을 불태워 공(空)으로 지워버린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달은 고원(孤圓)하여 그 광명이 삼라만상을 통째로 삼키듯이 우리의 마음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걸려 있는 모습은 중도의 마음인 천심처(天心處)이며 도인의 마음이며 체(體)와 용(用)입니다. 절대의 진리 자리입니다. 달이 호수에 잠기고 바람이 수면을 스치며 흐르는 비단물결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보우스님은 깨달음의 세계를 선시로 공양 올리며 깨닫고 보니 발걸음이 느껴져 지팡이를 다시 짚고 구름 헤지며 돌아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덕 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여러 가지 상(相)에 가로막혀 처처에 걸립니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고 깨달아 삼세에 후회 없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수좌가 단아 천연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처의 살림살이이고 어떤 것이 조사의 살림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교(敎)와 선(禪)의 차이점을 물은 것입니다. 이게 천연스님은 ‘달은 높고 낮은 소나무가지를 그림자라도 만들어 채질하고 해는 연못 한복판에 파란 하늘을 비취준다’고 화답했습니다. ‘교’는 태양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주는 것이고 ‘선’은 달처럼 하얀 달빛의 광명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다가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내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의 실상을 통달한다.”며 그림 사람은 물도 없는 희유공덕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제53강 梵音相과 趙州의 신작 (3) (범음상과 조주의 신작)

다음 이야기는 王(왕)과 臣下(신하)이다. 陸大夫(육대부)가, 남전화상에게 물었다. 「스님의 성이 무엇입니까?」 「王(왕)이다.」 「王(왕)이 권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四臣(사신)이 不昧(불매)」하니라. 「王(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푸른 이끼가 돋은 寶殿(보전)에 거하니라.」 이 화두에서는 남전과 陸大夫(육대부)와의 은근한 禪話道譚(선화도담)의 담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듯한 가운데 담담한 선 열의 道味(도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전은 「平常心佛道(평상심불도)」라고, 趙州(조주)에게 물었다. 「如何是道(여하시도)?」하는 조주의 질문에 四臣(사신)이 不昧(불매)라 한 것은 四大(사대)가 剛健(강건)하다는 뜻이다. 다음 이야기는 남전의 衲話(화)이다.

「어느 날 南泉(남전)이 띠를 베고 있을 때에 雲水僧(운수승)이 물었다. 「南泉(남전)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입니까?」 「낮을 들어 보이면서, 나의 낮을 30전 주고 사가거라.」 「나는 낮을 묻지 아니하고 남전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나의 이 낮을 써 보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南泉(남전)으로 가는 雲水僧(운수승)이, 남전으로 가는 길을 南泉(남전)화상에 물었다. 雲水僧(운수승)은 왜 남전으로 가는가? 南泉(남전)에는 당대의 宗匠(종장)인 南泉普願(남전보원)이 있기 때문이다. 남전은 띠를 베고 있는 자기의 낮을 사라고 한 것이다. 남전은 雲水僧(운수승)의 本分(본분)일까? 그저 노바심 절한 남전은 눈치도 없이 「나의 낮을 써 보면 기분이 상쾌할 것이다」고 되풀이 한다. 이것이 무마르게 발 뺨을 긁을 것일까? 다음 이야기는 趙州(조주)의 신작화(화)이다. 「南泉(남전)이 하루는 스스로 生飯(생반)을 마치고, 生盆(생반)을 가지고 올라가서, 손가락을 세 번 툽기고 몸을 굽혀 老鳩(노구)에게 말하되, 「무엇 하

는가」하고 문득 돌아보니, 조주가 뒤에 섰다. 조주가 신작을 벗어 던진 것을 보고, 남전이 고개를 숙이고 문득 되돌아갔다. 南泉(남전)은 뜻밖에 조주를 만났다. 조주가 신작을 벗어서 던지는 바람에 문득 方法(방법)으로 되돌아갔다. 남전은 평소엔 雲水僧(운수승)을 지도할 때에 방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수이다. 이것은 남전의 특유한 지도 방법이다. 되기는 됐다. 그저 입 다물고 방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 누가 탓하겠는가? 이 방법은 두루치기다. 하등 별 될 것이 없지 않는가? 알아도 입 다물고 방장으로! 몰라도 입 다물고 방장으로! 이 방법이야말로 아는 雲水(운수)에게도 무방하고, 모르는 雲水(운수)에게도 무방하다. 아는 雲水(운수)는 일층 더 向上(향상)할 것이도, 모르는 雲水(운수)는 눈을 부비며 분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個個(개개)! 好好(호호). 그러면 신작을 벗어 던진 것은 무슨 소식일까? 조주의 「이제야 발을 씻고 월만 하다」는 것일까? 이것이, 조주는 南泉(남전)에게 바치는 方法(방법)일까? 南泉(남전)은 어떻게 心許(심허)하였는가? 51강의 조주 신작을 벗어 머리에 인것과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 보라.

법(法)은 정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법(法)의 봉(奉)과 갈(渴)을 치려야 깨닫는 것

「나의 이 낮을 써 보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南泉(남전)으로 가는 雲水僧(운수승)이, 남전으로 가는 길을 南泉(남전)화상에 물었다. 雲水僧(운수승)은 왜 남전으로 가는가? 南泉(남전)에는 당대의 宗匠(종장)인 南泉普願(남전보원)이 있기 때문이다. 남전은 띠를 베고 있는 자기의 낮을 사라고 한 것이다. 남전은 雲水僧(운수승)의 本分(본분)일까? 그저 노바심 절한 남전은 눈치도 없이 「나의 낮을 써 보면 기분이 상쾌할 것이다」고 되풀이 한다. 이것이 무마르게 발 뺨을 긁을 것일까? 다음 이야기는 趙州(조주)의 신작화(화)이다. 「南泉(남전)이 하루는 스스로 生飯(생반)을 마치고, 生盆(생반)을 가지고 올라가서, 손가락을 세 번 툽기고 몸을 굽혀 老鳩(노구)에게 말하되, 「무엇 하

를 다지는 범회를 가졌다. 이날 주지스님은 “초심자는 습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을 목어와 같은 수행자상을 기본자세로 자리이타의 삶과 선근의 씨앗을 심어서 업을 털고 늘 깨어있으며 스스로 닦은 도를 행으로 실천(수행실수)하는 삶을 살라.”고 범문했다. <글 서용화수>

제6회 청계 불교대학 졸업식

지난 1월 16일 설법전에서 학장 성행스님과 강사 성진스님을 비롯하여 19명의 졸업생과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의 불교대학 과정을 마치는 졸업식을 여여하게 회향했다. 2017년 3월 입학의 시작으로 2월 한달간 기본 소양교육과 봄, 가을 성지순례, 봉사과 견학, 신도 기본교육 이수 후 수계식, 1박 2일 템플스테이, 포교원 주반 4시간 교육연수 등 이수했다. 이날 성행주지스님은 “불교를 알고자 기본 소양부터 배웠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불자로서의 새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배우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금구성언)을 함께 공유하며 권유하는 삶을 살자.”고 격려했다. 재학기간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데 정진하였고 신행 활동 등 대중화합이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포교 원장상(김미정, 해명지), 회주 종상스님상(홍영선, 수연행), 주지스님상(김진향, 보광월). 제6회 회장 박경희(무진심) 총무 최미경(보문지) 재무 맹명호(문수성) 임원진이 결정되었다. <글 서용화수>



<글 황청량심>

제 7회 불교대학 기본교육

지난 2월 6일 선불장에서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불교대학 문묘회장 포교사(안 법진)의 불교 입문 기본교육 강기가 있었다. 불자의 자세와 행동, 사찰의 구조, 불상과 불교회화 및 청계사 유래를 설명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직접 수강생들과 함께 사찰을 돌며 청계사 사찰 안내로 수업을 끝냈다. <글 공원행각, 주향진성>

깨어있어라 욕심을 버려라

지난 1월 19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목어회(회장 법안정)회원들과 신도회 회원 백여명이 동참하여 주지스님특별 범회를 보행했다. 제 6기 불교대학 졸업식으로 신입회원이 늘어난 목어회는 실천하는 불교, 생활 속의 불교로 발전시키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롭게 마

뉴스 & 뉴스

무술년 입춘기도



지난 2월 4일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입춘기도를 극락보전과 야외법당 및 설법전에서 여법하게 보행했다. 청계는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작게는 나와 이웃의 행복과 삼재소멸을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올해는 범, 말, 개미의 나가는 날삼재 해”라며 “삼재소멸을 위해 좋은 일도 찾아서 하고 더 성심성의껏 기도하라”고 범문했다. 그리고 특별히 불자들을 위해 신중전 참배를 하게 하여 날삼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회진언과 광명진언 속에 지난 다라니를 소하고 무술년 다라니를 지니며 입춘기도를 회향했다. <글 심대덕심>

부처님의 가피와 복을 가족의 품으로...

지난 초하루 청계사 앞마당에서 신도 300여명은 초하루기도 및 설법전 맹화점안식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가피와 복을 받아 가족의 품안에 안겨주는 행복의 파수꾼이 됐다. 이날 주지스님은 범문에서 “우리는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과거의 휴, 부처님을 생각하는 현재의 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화두를 갖는 현재의 휴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남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그릇에 담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가는 나에게 달

뉴스 & 뉴스

영어 자카타 암송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지난 1월 13일 한국불교문화관에서 열린 제11회 영어 자카타 암송대회에서 청계사 어린이법회의 이

지단, 이종민 어린이가 부문별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본생담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자카타는 매년 전국 수많은 천진분들이 각 사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데,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치열한 예선과 결선대회를 치



천진불 스키 캠프

지난 1월 24일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으로 ‘청계사 천진불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아침 일찍 모인 어린이들은 열에서 제공해준 버스를 타고 고품질이 집인 베어스타운으로 고고~영하 18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스키를 빌려 로보갑 복장을 하고 강사님을 따라서 강습을 시작했다.



<글 황용수 선생>